

묘지에 입제형 제초제 뿌려주세요~

- 해빙기에 뿌려두면 잡초 발생 현저히 줄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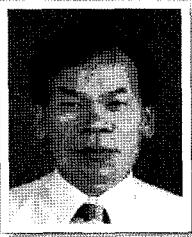
잡초로 무성한 조상의 묘로 인해 죄스러운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되겠다. 요즘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벌초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빙기(설날이나 한식 성묘 시) 입제(粒劑)형 제초제를 뿌려두면 잡초 발생이 줄어들어 추석 전에 하는 벌초작업이 한결 여유로워진다.

과거에는 벌초작업이 주로 추석 전에 한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묘지에 많은 잡초가 발생하므로 6월 하순~7월 초순경에 예비적으로 한번 벌초를 하고, 추석 전에 다시 벌초를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벌초 작업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잡초발생 전 제초제를 살포하는데, 이 때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초제는 물과 살포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벌초는 잡초 발생량이 줄어들수록 능률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에 2월 상순(입춘)



오세문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부터 4월 상순(한식) 경 잔디밭에 사용할 수 있는 입제형 제초제를 해빙기(解冰期)에 산소와 주위에 뿌려 놓으면 제초제가 서서히 녹아 처리 층을 형성함으로써 잡초의 발생을 막아준다.

벌초는 조상의 묘를 단정하고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후손들의 정성의 표현으로 입제형 제초제를 적기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벌초작업으로 묘지관리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겠다.



제초제 무처리

입제형 제초제 처리
4월초(한식)에 입제형 제초제 살포 후 6월 하순의 묘지 잡초발생 상황

해빙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잔디용 입제형 제초제

약제명	사용량	사용시기	주의사항
디클로베닐 입제	500g 병/묘지	잡초 발아전	새로 잔디를 조성한 곳이나,
디클로베닐·이마자くん 입제	300g 병/묘지	(잔디 휴면기)	나무뿌리가 뻗어있는 수관
이마자くん 입제	500g 병/묘지	토양처리	아래에는 사용금지